

계몽의 빈 틈, 근대적 주체성의 장소*

- 『소년』지에 나타난 문체의 혼종성의 의미 -

박슬기**

1. 『소년』지에 나타난 문체의 혼종성, 국한문체의 바깥
2. 편집자의 <라>체에 포함된 ‘나’의 <다>체
3. 가면 쓰고 말하기, 초월론적 주체이자 제로 기호로서의 ‘나’
4. 근대적 ‘나’의 장소, 계몽의 장이 균열되는 지점

1. 『소년』에 나타난 문체의 혼종성, 국한문체의 바깥

근대 어문의 성립 과정을 추동하는 것은 언문일치의 이상이며, 이는 국가와 민족의 경계를 형성하는 언어적 토대의 문제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일반적으로 이 과정은 한문과 국문의 대립 구도 속에서 국한문체를 거쳐, 국문체의 일반화로 귀결되는 것으로 정리된다.¹⁾ 이러한 관점에서 최남선의 『시문독본』을 비롯

* 이 논문은 2016년도 한림대학교 교비연구비(HRF-201612-001)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한림대학교 인문학부 국어국문학 전공 조교수.

1) 이 과정은 한문체와 국문체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이해되었다. 국문체가 한문체를 대체했다고 보는 관점에서는, 한문체에 결부된 전통적 인식 방식을 탈피하고 근대적 인식으로 이행하면서 조선어문을 국문체로 확립하고자 했다고 본다. 이 단계에서는 근대 어문의 성립과정을 한문체에서 국한문체, 그리고 순국문체로 이어지는 발전적 과정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두 번째 단계에서는 한문체와 국문체가 선명한 대립 구도를 형성하지는 않았던 점, 순한문체와 순국문체가 병존하고 있었던 시기가 있었다는 점, 순국문체 대신에 국한문체가 계몽기의 지배적인 문체로 자리 잡았다는 점, 1920년대에 들어 국문체가 국한문체를 기반으로 하여 성립하였다는 점 등이 거론되었다. 즉 근대 어문의 성립 과정은 한문체와 국문체가 그 지배적 위치를 바꿔가는 발전적 과정을 거쳤다기보다

하여 『소년』과 『청춘』의 문장들은 국한문체의 특징과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연구 대상으로 자리매김되어 왔다. 특히 『소년』의 국한문체는 문장 구조의 정비, 표기의 일관성, 국주한종의 실현 등의 측면 외에도, 한문의 압축적 양상을 벗어나 국문만으로 보다 다양하게 글쓰기를 구사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평가받았다.²⁾ 『소년』은 한문의 문맥에서 벗어난 국문 글쓰기의 모범을 보여주었고 이를 잡지의 문체로 활용함으로써 국문 글쓰기가 지닌 매체로서의 가능성을 크게 확장했다.³⁾ 그런 차원에서 『소년』의 문체를 결과적으로는 『시문독본』으로 정리될 성질의 것으로, 최남선의 시문체 실험과 국한문체의 일반화의 한 과정으로 간주하는 것은 문체론의 당연한 귀결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소년』에는 한문체와 순국문체 역시 많이 나타나는데, 이들은 한문체

는 한문체의 세계 인식과 국문체의 세계 인식이 갈등하고 통합되는 과정을 거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1910년대 문현들에 나타나는 문체적 혼종 상황은 한문체와 국문체의 갈등과 통합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연구는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하나는 문체의 선택이 지식의 전파와 독자의 수용 가능성에 달려 있었다고 보는 것이다. 『독립신문』이나 『대한매일신보』가 순국문체를 선택했던 이유는 한문 해독의 어려운 대중 독자를 계몽하기 위해서였다. 이런 경우 문체의 선택은 매체의 성격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된다(김영민, 2012 『문학제도 및 민족어의 형성과 한국 근대문학』, 소명출판, 206-207면). 두 번째로는 언어가 정체성의 형성에 관여한다는 점에서 민족과 국가의 정체성을 구축하려는 필요성이 국문체를 요청하였다라는 것이다. 이는 타 민족어와 조선어 사이의 차이를 발견하고, 이 차이를 매개로 자국어를 정돈하려는 번역의 수행성과 결부되어 논의된다(황호덕, 2005 『근대네이션과 그 표상들』, 소명출판, 435면). 그러나 매체의 성격과 민족 정체성의 형성이라는 두 차원은 사실 분리되기 어려운 것인데, 매체의 요청은 결국 독자 주체를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독자 주체는 자신의 시대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동시에 가로지르며 세계를 시공간적으로 전유하여 특정 시간대의 절대화를 이루어내는 것이기 때문이다(한기형, 2008 『매체의 언어 분할과 근대문학』, 임형택 외, 『흔들리는 언어들』,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45면). 세 번째로는 근대 문학의 언어 문제이다. 이는 사실 매체의 성격과 민족 정체성의 형성과 무관한 것은 아니나, 주로 신소설과 근대 소설의 문체를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2) 임상석, 2008 『20세기 국한문체의 형성과정』, 지식산업사, 286면.

3) 『소년』이 보여준 문체가 중요한 이유는 한국어 통사구조를 충실히 따르는 글쓰기를 비교적 일관되게 견지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관된 글쓰기를 가능케 했던 것은 ‘소년과 그 부형’을 독자층으로 설정하고 이들의 소비 욕망에 부응하는 편집 체계를 유지한 것이다(정선태, 2004 『번역과 근대 소설 문체의 발견: 잡지 『소년』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48, 82면).

로도 순국문체로도 명쾌하게 정의할 수 없는 혼종된 문체들이다. 국한문체로도 볼 수 없는, 그 어떠한 문체로도 명쾌하게 환원할 수 없는 문체적 지표들이 『소년』의 문장에 드러나고 있다는 점은 『소년』의 문체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여지를 제공한다. 『소년』이 최남선의 1인 잡지였다는 점에서 여기에 수록된 대부분의 글의 저술자는 최남선이지만 그는 ‘저자’가 아니라 ‘편집자’였다. 대부분의 글이 벌췌 번역이거나 수집된 지식을 재구성한 것이었기 때문이다.⁴⁾ 따라서 문체의 혼종은 원문의 성격과 일차적으로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저자 최남선’의 글 즉, 논설문이나 기행문에서도 문체는 일관성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더라>체와 <다>체를 번갈아가며 사용한다든가, 전형적인 한문 수사를 사용하면서도 순국문의 수사를 사용하는 등 문체는 하나의 글 안에서도 통일되지 못한다.

물론 『소년』은 이 모든 혼종성에도 불구하고 국한문체를 견지해나갔고,⁵⁾ 최남선은 이를 시문체로 명명하여 근대 문학의 언어로 삼았다. 그렇다면 『소년』의 글들이 보여주는 문체의 혼종성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세계 인식의 틀로서의 국한문체가 지니고 있던 어떤 균열의 지점을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 이는 문체론으로는, 즉 국한문체 내부에서는 설명될 수 없다. 그것은 문체 이전에 성립되어 있어야 할 ‘글쓰는 자’, 즉 자신의 말과 생각을 문장으로 만들어 낼 주체에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국한문체의 한글 버전인 국문체가 근대 문학의 문체이며, 이것이 이후 한국 문학의 지배적인 문체가 되었다면⁶⁾ 그것은 『소년』 이전의 순국문체, 즉 『독립신

4) 박슬기, 2016 「편집자 최남선과 『소년』이라는 매체-심급」 『사이언스 SAL』 20, 91면. 최남선이 『소년』의 ‘편집자’였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그는 지식을 『소년』의 지면에 배치하는 자이자 이를 통해서 근대적 지식의 전달-수용의 장을 설계하는 자이지. 저자 즉 글쓰는 자가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지식’은 사실은 『소년』에 수록된 모든 지식이라는 점에서 이 지식은 결과적으로 『소년』 자체며, 『소년』은 텅 비어 있는 물질성으로서 이 저자-독자의 네트워크라는 현실적 장을 창출한다.

5) 『소년』이 지키고 있는 국한문체의 원칙은 띠어쓰기나 철자법 등 세세한 영역에 이르는 것 이었고, 이는 최남선의 문체 의식이 상당히 강력하게 『소년』에서 구현되고 있었다는 점을 의미한다(권두연, 2008 「『소년』, 문체 실험의 장」 『민족문학사연구』 36, 125면). 권두연은 이미 국문체로 간행된 단행본들이 『소년』에 수록될 때는 국한문체로 변형되었다는 점을 들어, 『소년』의 국한문체는 매우 견고한 원칙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문』의 문체와 같은 것이 아니다. 『독립신문』의 문체는 고전적인 구어체를 그대로 활자화한 것이되, 여전히 전근대적인 인식의 흔적을 떨쳐내지 못한 것이었다. 그것은 ‘쓰인 글’이었다기보다는 ‘발화된 말’의 영역에 있었기 때문이다. 언문일치는 ‘말의 인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말의 문자화’가 곧바로 근대적 문장 쓰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⁷⁾ 언문일치가 일종의 제도라고 할 때, 그것은 세계를 인식하는 방법론이자 그에 따른 자기 내면의 구성 방법이다. 가라타니 고진이 지적했듯, 언문일치란 ‘언’의 발명이며, 이때 ‘언’은 자기의 의식 즉 내면이며 ‘문’이란 그것을 베껴서 얻는 것이기 때문이다.⁸⁾ 그러나 동시에 내면은 그것을 표현하기 위한 언어가 발명되어야 존재할 수 있다.⁹⁾ 말하자면 내면과 그 표현으로서의 문장은 발생의 선후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완전히 새로운 지평 위에서 자기와 자기의 바깥(세계, 대상), 그리고 언어가 새롭게 관계를 맺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차원에서 국한문체는 음성-문자 혹은 한문-국문의 관계를 넘어서서 주체와 그의 현실의 관계를 구성하는 틀로 간주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한문과 국문은 재현의 가능성의 측면에서 대비된다. 조선의 말을 본뜬 조선어 문체가 구체적 현실 세계를 좀 더 그럴듯하게 재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¹⁰⁾ 그러나 이 지점에서 류준필이 다산의 문장론을 분석하며 제기한 문제는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한다. 한자를 표기 수단으로 삼아 조선어의 ‘소리’를 재현하는 것은 반드시 실패하는데, 이는 ‘소리’가 인간의 언어 바깥에서 언어의 안으로 들어올 때 결코 의미화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조선의 현실을 ‘재현’하는 언어

6) 임형택, 「소설에서 근대어문의 실현 경로」, 임형택 외, 앞의 책, 235면.

7) 이러한 측면에서 『소년』이 윤치호의 연설을 띠어쓰기 없이 순국문체로 수록한 것은 주목할 만한데, 권두연을 이를 두고 최남선이 구어와 문어에 대한 예민한 감각을 지녔다고 평가했다. 그는 『대도』에 실린 원문을 굳이 띠어쓰기 없이 늘어놓은 것은 ‘눈으로 읽히는 글이 아닌 음성으로 전달되는 말의 일부로 간주했다’는 것이며 이는 ‘국한문이 묵독형 문자이며 문어문에 사용되고 순국문은 음독형 문자이며 구어문에 사용된다는 구분 의식’을 드러낸다고 설명한다(권두연, 앞의 논문, 130면).

8) 가라타니 고진(김경원 옮김), 1999 『마르크스 그 가능성의 중심』, 이산, 176면.

9) 가라타니 고진(박유하 옮김), 1997 『일본근대문학의 기원』, 민음사, 55면.

10) 신지연, 2007 『글쓰기라는 거울』, 소명출판, 25면.

를 추구할 때 문제는 의미와 음성 사이의 관계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인위(인간)와 자연 사이에서 생겨나며, 정약용이 한문 문장에서 본 것은 자연(자연스러운 조선어 현실)이 한문의 바깥에 잉여로서 남아있다는 것이다.¹¹⁾

요컨대 국한문체 성립에 걸려 있는 것은 음성과 문자의 관계가 아니며, 나아가 ‘음성으로서의 조선어’와 ‘의미로서의 한문’의 대립과 통합 관계가 아니다. 류준필의 논의에서 중요한 것은 문자의 영역에서 배제되어 있는 조선어의 세계가 한문체 속에서 그 ‘잉여’로서 나타났다는 구도 자체다. 그것은 결코 재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언문일치의 이상 역시 이를 재현하려는 것은 아니었다. 언어가 현실을 ‘재현’하는 관점에 강고하게 입각한다면, 국한문체와 그의 주체 ‘나’가 처한 난국이 포착되지 않는다. 그것은 ‘나’와 ‘세계’ 사이의 구도에서 발생한 난국이자 지식을 배치하며 형성하는 계몽의 장 속에서 글쓰는 ‘나’가 위치하는 ‘장소’의 문제이다. ‘나’가 처한 난국은 구체적으로 『소년』의 문체적 혼종성에서 살펴볼 수 있다.

그러한 차원에서 문체의 혼종성이 특히 기행문에서 많이 발견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소년』 소재 기행문들은 『소년』에서 예외적으로 최남선이라는 한개인의 경험을 드러낸 서술로 주목받았다. 「반순성기」와 「평양행」을 분석하면서 문성환은 풍경을 관찰하고 일상적 경험을 서술하는 ‘발화자 나’로서 1인칭 주어의 출현을 지적했다.¹²⁾ 『소년』에 수록된 기행문의 양식을 통해 이러한 ‘일상적 개인’의 출현과 그의 ‘시선의 탄생’을 지적한 연구들은 기행문을 식민지 근대인의 심상지리를 드러내는 경험적 글쓰기임을 지적함으로써, 이 텍스트에서 드러나는 문체의 혼종성을 문명/미개로 통칭될 수 있는 대립적인 구도 속에서 이해한다.¹³⁾ 이에 따르면, 최남선의 ‘나’는 문명에 대한 그리고 이 문명이 실현되지 못한 조선의 현실에 대한 ‘식민지 근대인의 자의식’을 내보이는 자에 해당한다.

11) 류준필, 「근대 계몽기 어문 현실과 정약용」, 임형택 외, 앞의 책, 196~198면.

12) 문성환, 2008 『최남선의 글쓰기와 근대 기획 연구』,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67~68면.

13) 곽승미, 2011 「『소년』 소재 기행문 연구: 글쓰기와 근대문명 수용 양상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46. 최남선의 지리적 관심과 기행을 통한 영토와 민족의 경계 형성이 글쓰기를 통해 실현되었음을 논증한 윤영실의 논의 역시 이러한 논의의 맥락에 있다(윤영실, 2009 『최남선의 근대적 글쓰기와 민족담론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일상적 경험의 서술, 발화 행위자 ‘나’의 출현과 같은 특징들은 『소년』지에서 상당히 예외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근대 문학의 고백적인 ‘나’의 출현을 선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최남선’이라는 ‘나’를 세계를 인식하는 주관성이자 그 주체로서의 ‘나’와 곧바로 연결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이는 『소년』에서 인칭대명사 ‘나’와 그의 서술형 ‘~다’가 완전히 일치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체와 〈다〉체가 혼종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윤영실은 그의 경험적 글쓰기가 식민지 근대인의 내적 모순을 드러내지만, 다른 이들의 기행문과는 달리 문명 자체의 모순을 보며 그것은 제국과 조선 사이, 문명과 비문명 사이의 구도 속에 포섭되지 않은 ‘여백’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했다.¹⁴⁾ 어쩌면 근대적 주체로서의 ‘나’는 〈라〉체와 〈다〉체의 ‘사이’에 놓인 이 구도의 비어 있는 중심이 아닐까. 이 글은 〈라〉와 〈다〉의 관계를 고찰하면서 〈다〉와 결부된 ‘나’의 혼적을 따라가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근대적 글쓰기의 주체로서의 ‘나’가 『소년』의 문체 속에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2. 편집자의 〈라〉체에 포섭된 ‘나’의 〈다〉체

근대 문학의 문체의 성립에는 우리말 통사 구조, 문장의 종결 형태의 변화와 같은 문제가 결부되어 있다. 종결 형태를 문제 삼는다면, 〈었다〉체가 근대 문학의 문체로 확립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김동인이 이를 두고 순구어체의 실현이라 자평한 것에 대해 김병문은 ‘~었다’체가 구어에 더 가깝다는 증거는 전무하며 오히려 실제 발화에서 사용되기는 어려운 말투라는 점을 지적했다.¹⁵⁾ 앞서 논의한 바 언문일치체 문장은 구어의 재현이 아니라 세계를 인

14) 윤영실, 2008 「‘경험’적 글쓰기를 통한 ‘지식’의 균열과 식민지 근대성의 풍경」 『현대소설 연구』 38, 240면.

15) 김병문, 2013 『언어적 근대의 기획: 주시경과 그의 시대』, 소명출판, 81면. 그는 이러한 지적을 통해 언문일치체 문장이 무엇인가는 중요하지 않으며, 언문일치라는 관념이 상정했던 언어란 어떤 것이었는가에 대한 문제로 초점을 옮겨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식하고 묘사하는 ‘나’의 언어다. ‘나’가 세계를 인식론적으로 재구성하는 자라면, 그의 서술형은 그의 동사다. 즉 ‘나’의 수행성이 서술형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근대적 주체의 문장이 언문일치체라면, ‘자기’ 혹은 근대적 ‘나’는 어떤 서술형을 필요로 하는가. 그것이 〈더라〉체로 대표되는 국문체와 근대적 국문체 〈다〉체에 걸려 있는 문제다.

일반적으로 고전 소설에서 이어진 〈더라〉체는 초월적 서술자의 문체이며 〈다〉체는 구체적 관찰자의 문체라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다〉체가 〈더라〉체를 대체하고 근대 문학의 언어로 자리잡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신소설에서는 고전 소설에서 이어 받은 〈더라〉체와 근대적 〈다〉체가 동시에 나타난다. 이때 〈다〉는 순수한 현재로서의 〈ㄴ다〉와 과거형 〈었다〉로 분화될 수 있다. 〈ㄴ다〉는 현재형으로서 지금 여기의 사건에 대해 관찰하는 자를 출현시키고, 여기서 ‘지금-여기’라는 구체적 현실성이 휘발된 〈다〉는 1인칭 화자의 내면이라는 보편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내면을 고백하는 문체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다〉의 보편성은 〈었다〉라는 과거형으로 대체/고정되는데, 그것은 보편적이고 관념적인 발화자의 내면에서 벗어나 소설의 구체적인 현실성을 확보하게 되는 역할을하게 된다.¹⁶⁾

16) 권보드래는 신소설에 나타난 〈더라〉체와 〈다〉체의 양상을 분석하면서 〈다〉체가 시공간적으로 특정된 묘사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때 〈다〉체는 서술자의 초월적 성격이 지워지고 단순한 관찰자로서의 면모가 부각되는 순간 출현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는 〈다〉체가 지닌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성격에 의거하는데, 하대하는 형태인 〈다〉체는 일상에서의 관계의 흔적을 지운 것이며, 일상어의 존대 체계 자체를 떠난 새로운 언어 질서야말로 〈다〉체가 목표로 한 바였다는 것이다(권보드래, 2000『한국 근대 소설의 기원』, 소명출판, 244-245면 참조). 그러나 김병문은 이에 대해 〈더라〉역시 반말체이기는 마찬가지며, 〈다〉체가 반말체라고 하여 〈다〉가 관계의 흔적을 지우는 문체임을 지적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오히려 이 두 개의 문체에 걸려 있는 ‘발화의 현실’을 문제 삼는데, 명제 내용과 청자에 대한 화자의 태도 등이 드러나는 〈더라〉체가 배제된 후 선택된 것이 〈었다〉체였다고 주장하며, 두 개의 문체에 걸려 있는 ‘발화의 현실’과 ‘문체의 주체의 성격’을 문제 삼았다(김병문, 앞의 책, 85면). 그러나 여기에서 김병문은 순수한 현재인 〈다〉체가 아니라 〈ㄴ다〉체를 논의함으로써, 〈다〉체를 현재 시제를 담고 있는 것으로 치환했으며 〈었다〉체로서의 과거형을 〈다〉체의 현실로 내세우고 있다. 다소 복잡한 논의를 간단하게 해보자면, 권보드래는 1인칭 주어의 서술형과 3인칭 주어의 서술형을 구별하고 각각의 주어-서술형의 문장이 만들어내는 효과에 주목한다. 그의 논의는 언표

다소 간략한 이 정리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종결 어미의 주어로서의 ‘나’가 발화 주체인 나와 정확히 일치하는가 하는 문제다. 김동인에게 있어서 ‘~었다’의 주어는 3인칭이었으며, 이는 사실상 3인칭 주어의 행동을 묘사하는 초월적 ‘나’의 존재가 숨겨져 있다는 점을 가리킨다. 말하자면, 서술자는 문장에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었다’의 초월적 서술자가 <더라>의 초월적 서술자의 지위와 어떻게 다른지 의문이 생긴다. 김병문이 지적했듯, 어쩌면 문제는 특정한 종결형을 지닌 문장의 ‘주어’와 특정한 종결형을 발화하거나 쓰는 문체의 ‘주체’의 문제로 되돌려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다>와 <라>의 관계로 되돌아 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검토할 때, 『소년』의 종결형은 대부분 ‘~라’이거나 ‘~노이 다’라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단적으로 창간 선언에서 그는 “나는 이 잡지의 간 행하는 취지에 대하여 길게 말씀하지 아니하리라”라고¹⁷⁾ 쓰고 있다. 그리고 「소 년시언」과 같은 논설에서도, 지식을 소개하는 글에서도 대체로 <라>체를 쓰고 있다.¹⁸⁾ <라>체가 초월적 서술자의 위치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소년』에서 이러

가 수행하는 문학적 지평에 관계되는 것이다. 반면에 김병문은 언표와 언표 주체의 관계에 주목한다. 권보드래의 논의에서 <다>체가 지금 현재의 관찰 속에서만 드러난다는 점에서 ‘지금’이라는 특정한 현재 시제를 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시제는 영원히 현 재인 시간으로 시간성이 휘발된 순수한 시제로 발전될 가능성을 담은 것이다. 그리고 이 러한 무시간의 시제에서 1인칭 발화자의 내면의 보편성을 담아낼 수 있는 것이다. 그는 여기서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1인칭 주어가 지닌 두 개의 서술형, <느다>와 <다>의 분화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김동인에게서 확정된 <었다> 체는 과거형으로 3인칭 주어와 연결된다. 이에 대해 권보드래는 현재형 <다>체가 현실화의 순간에 맞추어 모든 사건을 제시한다면, <었다>체에서 사건은 과거로서 현재에 되살 아니며, 이는 독자의 현재적 시점과 서술자의 과거적 시점이라는 두 개의 시점이 마주치는 원근법적 입체를 만들어낸다며 이 속에서 소설의 현실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설명하 고 있다(권보드래, 앞의 책, 254면). 그러나 김병문의 경우, 주어-서술형의 문장을 언표로 간주하고 이 언표와 언표 주체의 관계에 주목한다. 그는 확정하고 있지 않지만, <더라>체가 상정하는 발화자와 청자의 관계를 지워 버린 문체, 즉 담화의 현실태를 제거한 것이 <다>체며 그것을 언문일치체로 간주한다. 담화의 현실적 맥락은 ‘언표 행위의 주체’를 보 증하는 것으로, 언표 행위의 주체를 보증하는 담화의 현실적 맥락이 소거됨으로써, 언표 이전에 언표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망각되고 결과적으로는 언표만 남게 되는 상 황이 언문일치의 문장이라는 것이다(김병문, 앞의 책, 86면).

17) 1908.11 「권두언」 『소년』 1년 1권.

한 〈라〉체를 주되게 사용한 이유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그것은 『소년』의 편집자였던 최남선이 지식의 전달과 수용의 장 전체를 관할하는 초월적 자리에 놓이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가 대부분의 서술에서 ‘우리’ 혹은 ‘吾人’이라는 주어를 사용한 것은 『소년』과 자신, 그리고 『소년』과 독자 소년을 일치시키고 있었기 때문이다.¹⁹⁾ 이러한 측면에서 〈라〉체는 지식의 전달과 수용이라는 장 전체를 확장된 평면으로 만드는 종결형이다. 이는 『소년』에 배치된 다양한 조선의 혹은 세계의 지식을 하나의 공시적 평면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 〈라〉체가 ‘나’라는 1인칭 대명사와도 종종 결합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때 ‘～라’와 결부되어 있는 주어 ‘나’를 개인 주체로 보기는 힘들다. 이 때 ‘나’는 나이자 너, 동시에 우리를 가리킨다. 기행문에서의 ‘나’에 대한 논의와는 달리, ‘풍경의 관찰’과 ‘나’의 등장이 필연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나’의 출현이 경험의 글쓰기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소년』 2년 4권에 실린 「동물계의 수륙양왕」이라는 글은 고래의 형태나 소용, 산지 등을 소개하는 글인데, 이 글의 말미에 자신이 울산에서 배를 타고 나갔다가 일본의 포경 장면을 구경한 경험을 덧붙여 놓고 있다.

본문과 구별하기 위해 본문의 글씨보다 작은 글씨로 적은 이 글은 “余-客夏에
蔚山近海를 過하다가 複眼間에 破響이 波를 震함을 聞하고 怪아하야 船人에게
問한즉 此는 捕鯨船에서 放하난 捕鯨砲라하야늘 急히 甲板上에 登하야 望見한즉
멀니 水天彷彿한 際에 數多한 大小船이 或緩或疾히 一進一退하난데 가만히 본
즉”과²⁰⁾ 같이 ‘여’로 자신을 가리키며 글을 시작하여 그 자신이 듣고, 본 것을 서술하고 있다. 물론 여기서 경험은 다만 발전된 일본과 낙후된 조선의 차이를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이를 통해 그들의 각성을 이끌어내려는 장치에 불과한 것이다. 그가 보았더니 대부분 일본의 배일 뿐 조선의 배는 없어서 “此를 觀함에

18) 이 〈라〉체가 〈더라〉와 얼마나 다른지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데, ‘～라’는 자의 주관적 의도를 나타내는 선어말 ‘오/우, 리, 니, 르씨, 더/러, 과/와, 로, 소, 애/애, 노, 이’와 결합하는 화자의 주관적 의도를 나타내는 종결어미 ‘라’의 결합이기 때문이다(이광호, 1983 「후기 중세국어의 종결어미 ‘～다/～라’의 의미」 『국어학』 12, 154면).

19) 『소년』과 자신, 『소년』과 독자의 일치에 대해서는 박슬기, 앞의 논문 참조.

20) 1909.4 「동물계의 수륙양왕」 『소년』 2년 4권, 34면(띄어쓰기: 인용자).

새로히 我國民의 企業勇의 적음과 利源開發의 思想이 업슴에 對하야 無限한 恨歎을 發하고²¹⁾ 일본의 이익 추구에 기민하고 모험에 능한 것을 감탄했다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그는 개인으로서 ‘보고 듣는 자’가 아니라 선각자이자 지도자로서 보고 듣는 위치에 있다. 그러면서 단박에 경험의 구체적 현실을 뛰어 넘어 지식의 세계로 향하고 지식의 세계를 바탕으로 다시 현실을 규정한다. 그는 현실에 의아함을 느끼고 조선과 일본의 포경사업보고서를 비교 검토한다. 또 풍부한 수산 자원을 지닌 울산 근해는 노르웨이 근해에 비견될 수 있음을 확인한다. 조선이 낙후되었다는 통곡은 지식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포경하는 배를 보고 ‘느끼고 생각한 바’가 조선의 암울한 현실일 수 있다. 그리고 조선에 대한 한탄과 일본에 대한 경탄이 이 경험에서 축발된 ‘개인의 감정’일 수는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 문제적인 지점은 조선인과 일본인의 ‘포경 사업보고서’를 비교하고, 울산 근해와 노르웨이 근해를 비교하는 지점, 즉 이 경험을 곧바로 지식의 체계로 편입시킴으로써 계몽의 담론 지평으로 환원시키는 점이다. 그가 직접 ‘본’ 일본의 포경선은 ‘포경사업보고서 속의 일본’으로 바로 등치된다. 그가 배를 타고 ‘지나갔던’ 울산 근해는 생산성의 지표로 환원되고 이 지식을 매개로 노르웨이 근해와 등치된다. 여기서 그의 경험의 실제성은 사라지고, 남는 것은 포경선으로 환기된 일본과 조선의 차이인 것이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라〉체이며, 여기서 그 경험의 주체인 ‘나’ 또한 사라진다.

이런 측면에서 〈다〉체가 ‘나’와 결합하는 장면, 그럼에도 〈라〉체 속에 포섭되는 장면은 이 ‘~다’와 주어 ‘나’의 위치를 살펴볼 수 있는 문제적인 지점이 될 것이다.

- A) 나는 너에게 感謝한다. 長城一面에 溶溶한 물과 大野東頭에 點點한 산은 내가
시인의 입으로 平壤의 조흥을 알고, 「三政丞願을 말고 平安監司願을 하소」는 내가
가 旅客의 글노 平壤의 조흥을 알고, 檀箕朝兩朝二千年都邑터로는 내가 歷史
로 因하야 平壤을 생각하고, 關海兩西六十七州中心地로는 내가 地理로 因하야
平壤을 생각하고 돌팔매·뱃기론 平壤의 風習을 익히듯고, 妓生帶子론 平壤의
特產을 오래듯고, 乙密臺·七星門으론 古戰場밟을 생각이 간절하고, 練光亭·浮碧

21) 위의 글, 35면.

樓론 錦繡江山볼마음이 그윽하고, 그림으로 보아 大同門을 웃지하면 보고, 말 노 드러 咸從栗을 웃지하면 먹나하며, 모통이 모통이 平壤求景의 생각이 소사 나와서 平壤이란 뉘집娘子는 얼마ㅅ동안 나의 相思人(러버)이라 그러나 五百五十里 머나면 길을 一瞬千里 나르난듯한 汽車가 생긴 뒤에도 때를 맞나지 못하야 平壤城圖八帖屏을 對할때마다 「相思不見이내眞情」만歎息하더니 네가 나에게 무슨 갑흘 恩惠가 잇관댄 나를 天一方우리님의 곳에 실어다가 매친마 음을 푸려주겠다 하나냐. 오냐 이것저것 무를것업다 잘만 태워다다고 詩로 글 노 말노 일노 듯기만 하야 가삼이 타던 못본 우리님이 얼마나 잘낫나 시원하 게 눈으로 좀 보자. 이러케 고마운 너에게 말노만 감사하겠나냐 約小하기는 하다마는 四圜三錢 주난 것이니 小禮를 大禮로 알아 한참 酒次나하여라. 나는 다시 너에게 感謝한다.

- B) 城넘어로 或 머리만 或 허리ㅅ가지만 或 길고 或 ㅅ자르게 或 흐릿하고 或 드러움개 或 ㅅ묘죽하고 或 평펴짐하게 或 푸르고 或 붉게 松岳의 連峯이 날듬 날듬 기웃기웃하난것을 도라다보면서 出發하 五里許에 잇난 一千一百八十八呎의 긴 洞道를 ㅅ바져 土城驛에 이르니
- C) 瑞興川에 이르러서는 車가 가만가만히 가난데 兩山이 서로 ㅅ겨안으려고 眉去 眼來하난 사이를 ㅅ바져나간즉 푸른疋비단갓흔 내가 ㅅ도 노엿고 四面에 稚松이 소담스럽게 덥힌 山이 屏風모양으로 둘쨋난데 山은 물을 ㅅ기도 잇고 물은 山을 것해 흘너 別노 한 乾坤을 自成한中, 벼가 누우렷캐넉어 黃金이 一面에 ㅅ갈니고 白鷺가 틈틈이 나르난 곳에 ㅅ도한 韻致잇게 나무로 접옹을 이은 집이 自然에 調和하야 헤여져잇고 곳곳이 허리긴 黃海道소가 풀을 ㅅ둣고잇서 오래 自然의 美를 주렸던 눈을 한ㅅ거번에 배불으게 만드려 恍忽히 잘그린 油畫를 對하난듯 神聖한 犀界에 드려온듯하니 아모리 没風流한 내기로 예괴야 그쳐가난수 잇나냐

A)~C)는 「평양행」(『소년』 2년 10권)에서 뽑은 것이다. 「평양행」은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최남선이 평양의 대성 학교를 방문했던 여정의 기록으로 보이며, 그렇다면 그의 경험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²²⁾ 그런데 이 기행문은 도산과 청년학우회의 관계자로서 계몽적인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고

22) 평양역에서 내린 후, “얼른 인력차 한채를 불너 타고 먼저 □□학교를 차저가기로 하다.”라고 쓰고 있어서 이 평양행의 목표가 업무 관련이었음을 보여준다. 『소년』 2년 10권이 발행 되던 시기에 그는 일본에 있었으므로, 이 기행문은 그 이전의 여행 기록인 것으로 보인다.

늘 그리워하던 평양에 드디어 가보게 된다는 기쁨을 내 보이면서 시작하고 있다. 이는 매우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할 수 없는데, 서두와 A)의 말미에 놓인 “나는-감사한다”는 이러한 감정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문장은 완전히 근대적인 문장으로, 『소년』 전체를 통틀어 볼 때 극히 예외적인 문장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나는-감사한다” 사이에 있는 문체는 전통적인 한문체와 변역투가 뒤섞여 나타나고 있으며, B)와 C)는 기차 여행 중의 감상이나 비평 등 개진하는 내용에 따라 다른 문체가 뒤섞이는 양상을 보여준다.

두 개의 ‘나는-감사한다’의 문장 사이에는 평양을 가보고 싶었던 이유, 기차의 발명이 준 편리함 등이 서술되어 있다. 평양을 가보고 싶었던 이유는 습득된 지식의 차원에 있다. 시인의 입으로, 여객의 글로, 역사적 지식으로, 지리적 지식으로 평양에 대해 알고 있었기 때문에 평양에 가고 싶었다는 것이다. 역사, 지리, 풍습, 특산물 등 열거되는 지식은 평양이 사랑의 대상이 되는 원인이기도 하다. “시로 글노 말노 일노 듯기만 하야 가삼이 타던 못본 우리님”이라는 사랑의 대상이 되, 대상에 대한 지식은 대상에 대한 사랑으로 전이된다.

“나는 너에게 감사한다.”가 열어놓은 장면이 ‘내면의 고백’이라면 이 내면이란 온갖 지식이 배치되어 채워진 세계가 아닐 수 없다. 나의 ‘생각’이나 ‘감사’와 같은 고백을 이끌어 내는 것은 축적된 그리고 배치된 지식의 세계이며, 평양에 대한 사랑은 역시 지식의 차원에서만 발견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평양은 그에게 실제로서 ‘자기 밖의 세계’가 아니다. 이때 호명되는 청자 ‘너’는 이 사랑의 대상을 “얼마나 잘낫나 시원하게 눈으로 좀 보”게 해줄 수 있는 고마운 기차가 된다. 그러할 때 이 발화자 ‘나’가 만드는 담화의 현실은 자기 밖의 평양이라는 세계가 아니라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청자 ‘기차’와 ‘나’의 관계로 대체되며, ‘나의 감사’는 이 청자를 향해 발화되는 특징을 지니게 된다.

온갖 관념과 지식이 채워진 내면을 ‘고백’하는 것이라면, 이를 ‘고백의 문체’로 볼 수 있는가? 일본의 근대 소설이 작가의 ‘고백’에서 가능해졌다고 하는 것은 근대 소설의 성격을 내면 탐구에 둔 탓이다. 자기의 모습을 작품의 중심에 놓는 일을 떠나면 근대 소설의 특성인 내면 탐구가 되지 않는다.²³⁾ 우리는 이러한 지

적을 다시 말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근대적 개인의 주체를 내면의 보편성을 가진 자로 확정할 수 없다. 일인칭대명사 ‘나’와 순수 현재 ‘다’가 결합한 문장의 출현을 두고 원근법적 시선의 중심점으로서의 주체의 출현으로 등치시키기도 어렵다. 나아가 ‘나’가 지금 현재의 관찰이라는 경험적 글쓰기의 주체라는 점도 확신하기 어렵다.

서두에 제기한 이 고백의 문체를 지나치면, 그 다음 여정의 기록은 온갖 것의 집합체로 볼 수 있다. 객차 안의 사람들의 묘사, 객차의 창문으로 보이는 외부 풍경에 대한 묘사와 함께 지나치는 지역에 대한 지리적 혹은 역사적 설명과 기차 설비에 대한 상세한 설명 그리고 예전에 여행했던 경험 등 이 모든 것들이 두 개의 문체로 혼재되어 나타난다. B)의 경우는 송도를 출발하여 토성역에 이르는 여정에 지나치는 풍경에 대한 묘사이며, C)의 경우는 단홍천을 끼고 있는 황해도 평야에 대한 묘사이다.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산봉우리를 ‘혹’이라는 연결 어를 사용해 연쇄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B)는 그것이 실제로 발화자가 보고 있거나 보았던 풍경이라 할지라도, 판소리계 소설에서 많이 나타나는 묘사와 다르지 않다. C)에서의 황해도 평야는 전형적으로 한문의 관습에 의해 묘사된다. 평야를 “한 乾坤” 혹은 “神聖한 靈界”로 간주하는 것이나, 한문적 관습을 나열한 후에 시조를 덧붙여놓는 것 등을 볼 때, 이러한 묘사들이 겨냥하는 대상을 구체적 경험 혹은 개인의 시선에 의해 발견된 풍경으로 보기기는 어렵다.

여기에서 주어 ‘나’는 드문드문 나타나지만 이 ‘나’가 풍경을 관찰하는 현재적 시선의 주체라는 점은 확인하기 어렵다. 이 기행문에서 예외적으로 나타나는 〈다〉체의 경우, “그以後옛百年人동안 支那의 游客이 이곳을 爲하야 錦繡를 앗기지아니한 勝地도 이제와서는 爆藥은 그 배를 人들코 鐵路가 그밋흘 人괴여 惡魔의 넓김과 갓흔 煤煙이 曇夜로 더러힘을 생각하고 爲하야 一歎을 發하다”나 “前日에 보지못하던 外國人の 商塵이 거의 整齊하게 市街를 이룬것을 보고 새삼스럽게 놀남을 禁치못할 人분外에 더욱 이 鐵道의 일노 여러가지 感慨를 抑制치못하다”의 경우에서처럼 과거의 일과 현재의 일을 대비하는 지점에서 나타난다. 그 외에 기차의 설비를 소개하거나 그 지역에 대한 지리, 역사적 설명, 기차 안

23) 김윤식, 1986 『한국 근대소설사 연구』, 을유문화사, 97면.

과 밖의 풍경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는 여전히 〈더라〉체를 사용하고 있다.

말하자면 “나는 너에게 감사한다.”와 “나는 다시 너에게 감사한다.”는 청자 기 차와 화자 나 사이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며, 이후의 서술 속에서 이 ‘나’는 점점 사라지는 것이다. 즉 『소년』에서 나타나는 〈라〉와 〈다〉의 혼재를 통해 드러나는 바는 〈라〉체의 배열과 배치 속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는 서술 주체다. 최남선은 자기를 명백하게 드러낼 때는 ‘집필인’이라는 호칭을 사용했는데, 그는 ‘나’ 대신에 ‘집필인’이라는 이름을 대신 내세우고 있다. 이는 일종의 가면 놀이에 가까운 것이다. 「소년이과교실」을 시작하면서, 그는 여쭈는 말씀으로 “나는 아모것도 안다고할 것은 업소.”, “나도 또한 안다난 사람이 한번 되어보려함이오.”라고²⁴⁾ 쓰고 있다. 이 ‘나’는 당연히 편집자 최남선이다. 그러나 그 밑에 그는 “소년이과교실 주임 식”으로 써놓음으로써, 자신을 ‘소년이과교실 주임’으로 대체해 놓았다. 말하자면 그의 문장에서 이 문장을 발화하는 혹은 쓰는 주체 그 자신은 언제나 다른 이름 밑에서 지칭하고 사라지며, 그러할 때 다시 지배적이 되는 것은 가면 놀이를 하는 주체, 다시 말해 『소년』을 편집하고 배치하는 ‘편집자’ 그 자체다. 편집자는 서술자가 아니며, 그는 다만 『소년』이라는 기호 뒤에 숨어 있는 존재다.

3. 가면 쓰고 말하기, 초월론적 주체이자 제로 기호로서의 ‘나’

이 지점에서 문장의 주어 ‘나’와 그 말을 발화하는 주체와의 구별 문제를 재고 해 볼 필요가 있다. 데카르트의 코기토에서 연원한 근대적 주체란 언제나 ‘생각하다’는 동사와 관계를 맺는다. 그러나 ‘생각하다’는 사실 모호한데, 이 동사와의 관계에서 주체를 성립시키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기 때문이다. ‘생각하다’가 지식의 형성에만 관여할 때, 그것의 주체는 인식론적 주관에 해당한다. 그러나 ‘생각하다’가 실천 일반의 문제와 연결된 하나의 행위일 때 그것의 주체는 실천적 주체에 해당한다. 사카이 나오키는 이러한 구별로부터, 주체를 인식론적 주관으로부터 구별하는 것은 먼저 주체의 실천적 성격이며, 그 성격 때문에 주체는 주

24) 1908.12 「소년이과교실」 『소년』 1년 2권, 128면.

관-객관이라는 대립구도에서 벗어나 있다고 설명했다.²⁵⁾

최남선의 ‘생각하다’는 그러한 측면에서 문제적이다. 「쾌소년세계주유시보」의 서술자는 단홍에도 내리고 싶고 황주에도 내리고 싶고, 평양에서도 내리고 싶었지만 외국 구경가기에 너무 여기저기 제나라 땅을 구경하기에 많은 날을 허비하는 것은 합당치 못한 듯하여, 의주로 직행하기로 한다. 밤중의 기차 안에서는 더 구경할 것도 없으니, 명상에 잠기게 되는데 다음은 그 인용문이다.

汽車는 나가난대로 어두음은 더하고 어두음이 더할사록 窓밖개 보이난 것은 주니
밤ㅅ중의 汽車에서는 할 일이라고는 熟睡가 아니면 寂想이라 이에 小生은 썬벽썬벽하
난 石油ㅅ燈을 벗어야 눈을 썼다 감았다하면서 한거름한거름 寂想界로 들어가노이다.

그러나 小生갓흔 어린아해가 寂想이라고한들 무슨 씀씩한것이오릿가 乞人の 씀에
는 王者도 잊슬난지 몰으거니와 小兒의 생각에는 經天經地·濟世安民의, 재조업시 못
될 생각도 업고, 酒池肉林 朝雲暮雨의, 땐안되면 물을 생각도 업고, 더군다나 宇宙니
人生이니하난 深奧高大한 생각은 거림자까지 업스니 우리의 寂想은 그 範圍가 좁고
그 對象이 갓갑소이다.

二

눈을 한번 감으니 생각이 억그적에 學校뜰에서 允吉伊 秀童伊와 술네잡기하던 모
양이 쌈쌈하던中明朗한 한복판에 顯然하게 떠나왔다. 今時에 씨슨듯하게 엊어졌다.
집에서 떠나올째에 父母두분은 念慮하시난中에도 어린아해로 그런 생각 있난 것이
奇特하게 아르서 매우 이길떠나난 것을 깃벼하시난 듯 하야 和한 목소리로 여러 가
지로 압길에 對한 訓諭를 주시난데 멋업난 三寸叔 한분이 넥해서 이러니저러니 되지
못한 소리로 쪘날臨時に 방주을 놋난 모양이 떠나왔다. 쪼 今時에 엊어졌다. 맞치活
動寫眞의 映畫板일다. 停車場에서 여러사람이 반갑게 作別하난中에 둘째ㅅ동생 敬一
伊가 『언니 나하고 갑시다』하기에, 가자고 손을 내밀었더니 어마님품으로 고개를 살
짝 돌니면서 『엄마도 가야지하지, 괴안(空然)히 젓도 못먹게』 하던 어엿분 모양과,
車를 타고 안질째에 掌車手가 韓日人을 分揀하야 이리타라 저리타라하던 아니꼬운
꼴과 其他 처음으로 넓은 世上에 나와 보고들은 景象이 뱃구어차기로 떠나온다.

三

帽子가 다 찌그려지고 몬지가 켜켜이 안진 갓을 뒤통수에 제쳐 쓰고, 압자락에 웃
은째가 거의 격이 이러날뜻한 두루막을 옷고름을 느직하게 매여넘고, 석쇠집신에 솜
이 씨역퀴역 나오난 버선으로 보기도 실케 걸어안자서, 기다란 담배ㅅ대에 넙담배를
담아서 요모조모 놀으면서 쪐역쪼역 목젖이 쪄러질뜻하게 뺄다가 넉해잇던 日女한아
가 눈을 쟁그리면서 『난쏘 오오찌나 기세루 다로오, 아례다께 수우데 시마우쏘 잇지

25) 사카이 나오키(후지이 타케시 옮김), 2005 『번역과 주체』, 이산, 157면.

니찌 구라이와 시라누마니 구레루데 쇼오네』하고 갓히 안진 놈팽이한아와 서로 도라보고 웃다가 손ㅅ가락으로 그사람의 무릎을 쑥쑥 찔으면서 『담배 마시 종고시요』하니 그사람 고개를 끄떡거리면서 『네, 네 쌀맛한가지오 사탕한가지요』하더니 이말 하난틈에 불이 죽게되엇던지 주머니듯해 달닌 범의 발톱갓히 생긴 쇠갈구리로 담배 花峰에 針을 두세번 주고서 불을 내밀고 음으리면서 담배ㅅ불을 내불고드리불고 하난서슬에 공교하다 불똥이 뛰여 桃花ㅅ벗 고은 그 계집의 쌈에 짹근한 맛을 보인지라 앓고 좁은 그 性稟, 독살이 발끈 나서 『이놈아, 요보야, 안되겠다, 무승일이 있서』하고 담배ㅅ대를 빼아스려하니 그사람은 無上한 罪나 犯한드시 惶恐無地하야 어느째 배와두엇던지 고개를 끄떡끄떡하면서 『억개미상, 잘못했서, 응, 잘못했서, 응, 안되겠서 말이했서, 내 저쪽으로 대고 떡으께에』하고 불이낫케 내압흐로 돌녀대이난 모양. 이것은 龍山에서 水色으로 오난 동안에 汽車안에서 본 쇠악운이.²⁶⁾

여기서는 최소 세 개의 시공간이 변환된다. 하나는 송도에서 의주로 향하고 있는 밤기차 안이라는 현실(①), 또 하나는 출발하기 전의 과거에 있었던 가족들에 대한 명상(②), 세 번째는 기차를 탄 후 용산에서 수색으로 오는 동안의 기차 안 풍경(③)이다. 첫 번째는 현재이며, 두 개의 장면은 과거다. 과거의 기차 안 풍경, 현실의 공간(①)에서 그는 기차가 어두우므로 명상계로 들어가되, 자신이 어린 아이라 “우리의 명상은 그 범위가 좁고 그 대상이 갓갑소이다.”라고 쓴다. 그러므로 ②와 ③은 둘 다 명상 속에서 떠올린 장면인 것인데, 둘 다 지금 현재 서술자가 보고 있는 현실의 장면은 아닌 것이다.

현재의 서술에서 “노이다”체를 쓰고 있으며, 과거에 대한 명상에서는 “다”체를 쓰고 있다. 그리고 과거의 기차 안 풍경에 대한 묘사에서는 “모양” “쇠악운이” 등 명사로 종결하고 있다. ②와 ③의 문체가 매우 대립적인 것은 주목할 만하다. ③에서는 단 한 문장으로 기차 안 풍경을 모두 묘사하고 있으며 이는 고전 소설에서 묘사하는 것과 같이 장황하고 상세하다. 만약에 구체적인 묘사의 영역에서 <다>체가 적극적으로 사용된다면, 그것은 ③에서 훨씬 적극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모자가 다 찌그러지고 먼지가 켜켜이 앉은 것을 뒤통수에 제껴 쓰고 앞자락에 묵은 때가 거의 격이 일어날 듯한 두루막을 옷고름을 느직하게 매여 입고”와 같은 인물에 대한 묘사가 구체적이고 생생한 현실을 실현하

26) 1910.3 「쾌소년세계주유시보-제오보」 『소년』 3년 3권, 53-55면.

는 것은 아니다.

최남선의 기행문이 결과적으로 여정을 따른다면, ③은 왜 갑자기 떠올랐는가. ②가 출발 직전의 풍경에 대한 생각이니, 이에 이어서 출발 직후의 풍경을 떠올린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말하자면, ③은 여전히 서술자의 생각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나’의 생각은 이 시간성을 내재화한다. 시간은 객관적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식 안에서 흐른다. 나의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것은 과거이기도 현재이기도 하며, 동시에 그 모든 시간선을 동일하게 지각하는 유일무이한 동일성인 ‘나’가 여기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하다’는 자신의 외부에 있는 객관적인 풍경을 발견하면서 그것과 분리된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다. 이 생각은 훨씬 실천적이다. 말하자면, 자신의 명상으로부터 구질구질한 조선인의 현실을 발견해 내는 것, 자기의 안에서부터 자기의 바깥으로 나아가고 그것을 다시 안쪽으로 지향시킨 일종의 역전도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이중의 주관화이며, 이중의 주관화를 실행시키는 것이 초월론적인 주체이자 바로 이 장 전체의 전도를 주관하는 주체다. 만약에 우리가 주체를 객관적인 풍경을 바라보는 원근법적 중심으로 간주한다면, 그것은 인식론적인 주관과 객관의 평면 속에 위치된 것이다.

이 장이 인식론적으로 배치되는 세계라는 점에서 ‘나’는 이 배치를 가능하게 하는 배후에, 즉 초월론적인 자리에 있다.²⁷⁾ 그러한 측면에서 이 주체는 〈더라〉체의 주체와는 다르다. 앞서 살펴보았듯, 〈더라〉체가 대상을 주관화하며, 담화의 현장 자체를 지배한다면 ‘나’는 청자로서의 ‘너’에 대해 초월적인 지위를 지닌다. 주관이 인식한 것에 대한 판단을 청자에게 기대하지 않기 때문이다.²⁸⁾ 그러나 ②의 〈다〉체는 ② 문단 전체를 일관하면서, ③역시도 지배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이러한 주관의 형식은 언제나 ‘나’라는 표상을 필요로 한다

27) 가라타니 고진(송태욱 옮김), 2005 『트랜스크리틱』, 한길사, 134-135면 참조.

28) ‘~더라’는 화자 자신이 의식했거나 판단한 사실을 반드시 청자에게 전하는 것으로 단절되었던 인식 내용을 다시 의식하기 위해서는 화자의 주관적 의도가 개재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화자가 주관적으로 다시 인식한 사실이 청자에게 ‘참’으로 받아들여지건, ‘거짓’으로 받아들여지건 그 결과에 개의치 않는다는 것이다(이광호, 앞의 논문, 151면).

는 것이다. 그것은 코기토 명제가 ‘일인칭 화자’를 문장의 주어로 삼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완전한 근대 문체로 볼 수 있는 ②에서 문장의 주어 ‘나’는 등장하지 않는다. “눈을 한번 감으니 생각이 엊그제 학교뜰에서 윤길이 수동이 와 술래잡기하던 모양이 깜깜한 중 명랑한 한복판에 현연하게 떠나왔다.”의 문장에서 주어는 ‘생각’이다. 이는 바로 이어지는 문장인 “금시에 씻은듯하게 없어졌다”에서도 마찬가지다. 여기서 문장의 주어는 ‘생각’이지만, 이 행위의 주체는 ‘나’다. 그러나 문장에서 ‘나’가 표상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나’라는 점을 보증할 수 있는 확실성은 없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코기토의 확실성이 ‘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다’ 자체에 있는 것이라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코기토의 확실성을 증명하는 것은 ‘문법적 주체는 1인칭이며, 시제는 현재이며, 그 동사는 주체를 활성화하는 심리적인 동사 그룹 중 하나다’²⁹⁾라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생각하다’가 확실한 것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생각하는 나’(코기토)를 ‘생각하는 나’가 코기토의 배후에 또 있어야 한다. 이때 코기토를 보증하는 것은 그 배후에 있는 ‘생각하는 나’인데, 이 ‘나’는 확실하지 않으므로 유일하게 확실한 것은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다. 말하자면, 코기토의 확실성은 ‘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 있으며, 그러므로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도 아니고, 다른 그 어떤 무엇도 아닌 ‘무엇’이 ‘내가 생각하고 있다’를 확신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코기토의 확실성을 정확히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 주체는 ‘생각하고 있는 중이다’로 표현되어야 한다.³⁰⁾

블랑쇼는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글쓰기 혹은 발화의 주체는 ‘주체와 객체 사이의 중립적인 무엇’이며, 이는 나도 아니며 비인칭도 아닌 것이라고 설명했다.³¹⁾ 그러나 코기토의 확실성을 보증하는 것이 ‘나’가 아니라 ‘생각하다’라면, 생각하는 행위를 하는 주체는 그 자명성을 상실한다. ‘나’라는 일정대명사는 이 행위의

29) A. Banfield, 1998 “The Name of Subject: The ‘Il’?,” *Yale French Studies* no. 93, p.135.

30) 위의 논문, p.138.

31) Blanchot(trans. Robert Lamberton), 1973 *Thomas the Obscure*, New York: David Lewis, p.112(여기서는 위의 논문, p.134에서 재인용).

차원을 언표의 차원에 고정시키고, 언표의 차원에서 발화하는 나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증하는 언어적 지표이기 때문이다. 데카르트의 코기토가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다는 행위’ 자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면, 이 ‘생각되는 과정에서의 생각’은 발화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나’는 다만 그 것의 언표적 형식을 제공하기 위해 제시된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②에서 주어 ‘나’가 사라지는 지점은 담화의 구체적 공간이 소멸되는 지점이다. 물론 정차장에서 둘째 동생 경일이가 서술자를 환송하면서 하는 행동이나 직접 인용된 그의 말은 현실적이면서도 구체적인 담화 공간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것은 명상, 즉 ‘생각’이 만들어내는 관념적이면서 보편적인 장 속에서 사라져 버린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지점, 즉 ‘나’가 사라진 공간에서 ‘나’는 이 문단 전체를 지배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주체로서 등장한다. 발화자 나는 대명사 ‘나’가 사라지는 지점 속에서 그 배후에 등장하는 것이다. ③에서 객차 안의 여러 인물들의 모습이나 행위를 두루 묘사한 다음에 비로소 ‘나’는 문면에 등장한다. “내 앞으로 돌려 대이는 모양”이 그것인데, 인물이 자신의 앞으로 육박해 오는 장면을 현장감있게 묘사하는 앞에서만 ‘나’는 비로소 마치 원래 없지 않았던 것처럼 출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것은 용산에서 수색으로 오는 동안에 기차 안에서 본 꼬락서니”라고 서술하며, 이 지나온 모든 문면들이 ‘나’의 생각이자 ‘나’의 관찰이었음을 드러낸다.

그러한 차원에서 「청소년세계주유시보」가 처음에는 ‘방년 25세의 학생 최건일’의 여행기로 설정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최남선은 그에게 ‘작년에 보통과를 졸업하고, 세계로 나가기 위해 영어, 일어, 중국어를 공부한 진취적인 소년’이라는 구체적인 약력을 부여했는데, 그렇다면 그의 여행기의 서술자는 ‘최건일’이 된다. 그가 여행기를 보내 오면 『소년』에 지속적으로 실기로 하면서 최남선은 “本執筆人은 이와 갓흔 快少年이 繢續 出來하야 少年韓半島의 名譽를 全世에 宣揚하고 이와 갓흔 快文字를 益益寄送하야 「少年」紙上에 光明을 大加하기”³²⁾ 바란다고 적고 있다. 다른 많은 글들과 마찬가지로 이 여행기도 최남선의 집필이었지만, 그는 ‘최건일’이라는 인물을 설정하고 그와 구별되는 ‘집필인’으로서의 자신을 나

32) 1908.11 「청소년세계주유시보-제일보」 『소년』 1년 1권, 72면.

누어 놓은 것이다. 어쨌든 독자에게는 이 여행기의 서술자는 ‘최건일’이므로 이 하의 서술자는 ‘최건일’로 받아들여진다. 「쾌소년세계주유시보」의 제 5보에 와서는 사실상 이 서술자 ‘최건일’의 목소리는 사라지고, 최남선의 서술로 바뀐다고 평가되지만, 이 서술자가 ‘최남선’이라는 보증은 그 어디에도 없다. 서술자의 이름이 ‘최건일’인 이상, 이 제 5보의 서술자 역시 ‘최건일’로 간주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건일이 가상의 인물이라는 점, 결국에는 세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송도에서 그 여정을 멈춘 점, 그 여행기가 구체적인 경험 없이는 쓰일 수 없다는 점에서 사실은 이 서술자는 ‘최남선’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최남선’은 ‘최건일’의 이름을 빌어 말하는 중, 가면을 쓰고 말하고 있는 중인 셈이다. 이는 달리 말하면, 이러한 담화의 보편적 장면, 확실한 주체성의 표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거짓된 이름’이라는 가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것은 ‘나’라는 일인칭 대명사의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에 해당하는 것이다. 일인칭 대명사는 언제나 구체적인 담화의 환경을 필요로 한다. 화자가 자신의 주체성에 대응하는 별개의 호출 부호를 매번 사용한다면 큰 혼란이 생겨날 것이므로, 언어는 유일하지만 유동적인 기호 ‘나’를 설정함으로써 이 위험에 대비하는데, 이 기호는 매번 자기 자신의 담화의 현실태를 가리킨다는 조건 하에 서만 각 화자에게 인수될 수 있기 때문이다.³³⁾

그렇다면 주체는 언제나 이 담화의 현실 속에서만 ‘나’로 나타나고, 곧 사라진다. 발화의 현실에서도 그러할진대, 쓰기의 상황에서는 ‘나라고 쓰는 나가 나라는 사실’을 보증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나’는 언제나 담화의 현실을 가정해야만 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가령, 서술자 최건일은 “여러분이여 길 떠남에臨하야 나는 한마드 부틸 말이 잇소이다”라고³⁴⁾ 쓰면서, 담화의 공간을 설정했다. ‘너’와 ‘나’가 배치되어 있는 이 공간 속에서만 ‘나’는 ‘여러분에 대응하는 나’이자 ‘여러분에게 부칠 말이 있는 나’로서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부칠 말’에 의해서만 후술되는 문장이 모두 서술자의 발화임이 추정될 수 있다.

이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가리키는데, 주체는 언제나 그것 자체와 동시적으로

33) E. Benveniste(황경자 옮김), 1992 『일반 언어학의 제문제』, 민음사, 366면.

34) 「쾌소년세계주유시보-제일보」, 74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 주체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채로 허구에 의해 날조되기 도 한다는 것, 즉 ‘쓰인 것’이라는 사실이다.³⁵⁾ 바로 이 가면 속에서만 주체는 빈 공간으로 여기에 등장한다. 주체에 남아 있는 것은 ‘텅 빈 형식’으로서의 ‘나’, ‘나의 표상에 동반’되는 일종의 잉여이기 때문이다.³⁶⁾ 그것은 아무런 내용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제로 기호(zero-sign)이지만 이 제로 기호가 없으면 세계는 구성될 수 없다. 그리고 이 ‘빈 공간’이자 일종의 ‘틈’에 의해서만 ‘나’와 ‘세계’는 분리되어 등장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4. 근대적 ‘나’의 장소, 계몽의 장이 균열되는 지점

『소년』의 문체를 국한문체의 실천이자 근대적 문체를 선취한 것으로 본다면, 『소년』에 나타난 문체의 혼종성은 결국에는 『시문독본』으로 정리될 문체의 과도 기적 실험의 결과로 보인다. 언문일치가 결국 ‘언’이라는 내면과 그것의 표현으로서의 문을 일치시키는 것이라면, 표현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내면이 먼저 생겨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그러나 언어가 없으면 또한 그 내면 또한 발견되지 않으므로, 들은 사실은 동시에 출현하는 것이다. 근대적 문장에서 확인되는 것은 내면을 가진 ‘나’는 자기의 서술어로 〈다〉체를 가진다는 점이다. 고전적 초월적 서술자의 〈더라〉체를 대체한 근대적 주체의 〈다〉체는 이러한 측면에서 근대적 주체의 탄생과 그의 수행을 보증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국한문체의 특징과 국 문체의 특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더라〉체와 〈다〉체의 논의 과정에서도 이 ‘근대적 주체의 탄생’은 이 모든 문체의 자명한 전제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소년』의 문체가 보여주는 바는, 이 ‘나’가 사실은 너무나 불안정하다는 점이다.

최남선은 『소년』의 대부분의 글에서 〈더라〉체를 사용했다. 그것은 그가 수많은 지식들을 배치하여 지식을 전달하고 유통하는 장을 형성하고자 했기 때문이

35) P. Lacoue-Labarthe, 1989 *Typograph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p.136.

36) P. Lacoue-Labarthe & Jean-Luc Nancy(trans. by P. Barnard and C. Lester), 1988 *The Literary Absolute*,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p.30.

며, 그 중심에 스스로를 놓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년』이 지식 형성과 전달의 현실적 장을 작동시키는 심급이라는 차원에서 그는 『소년』 자체와 분리되기 어렵다. 따라서 그가 자신을 드러낼 때는 언제나 ‘나’라는 인칭대명사 대신 ‘집필인’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거나 혹은 다른 이름을 내세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나’가 분명히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면을 지닌 근대적 주체는 배치된 지식의 체계 속에서는 자신의 표상으로서의 ‘나’라는 인칭 대명사를 가지지 못한다. 그러할 때 ‘나’를 주어로 한 〈다〉체가 나타나는 것은 몇몇 기행문들에서다. 그러나 최남선의 기행문을 채우고 있는 것은 그 개인의 경험적 서술이 아니다. 객차 밖의 풍경을 묘사할 때도, 객차 안의 승객들을 묘사할 때도 이 서술자가 원근법적 중심으로서의 시선의 주체의 지위를 차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문체와 순국문체를 뒤섞어서 풍경에 대한 묘사와 지식의 나열을 뒤섞어놓은 이 글들에서 ‘나’와 〈다〉체는 이 문체들의 틈새, 지식들의 틈새 속에서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이다.

『소년』은 세계의 지식이 배치되는 장소, 즉 조선과 제국이, 비문명과 문명이, 그리고 전근대와 근대가 하나의 지식 기호로서 배치되는 장소며 이 배치를 수행하는 자는 편집자 최남선이다. 그런데 이 배치가 불가능한 지점, “깜깜하여 아무 것도 할 수 없는”(『쾌소년세계주유시보 제5보』) 시점에야 비로소 〈다〉체가 등장 한다. 근대적 주체이자 자기의 내면을 가진 자로서 ‘나’는 이 배치의 틈새 속에서, 배치의 잉여로서 등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작은 틈새는 압도적인 계몽의 장이 균열되는 지점이자 인식론적 전도가 일어나는 지점이다. 배치의 언어들 속에서 ‘나’는 자기의 표상을 가질 수 없고, 그것이 최남선이 끊임없이 다른 이름을 사용했던 이유이다. ‘나’는 다른 이름을 대신 사용해야만 계몽의 장 속에 놓여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차원에서 근대적 주체로서의 ‘나’는 이 틈새 그 자체, 균열된 지점에 놓인 ‘이름없는 장소’로 출현하는 것이다.

주제어 : 잡지 소년, 최남선, 지식, 계몽, 나, 근대적 주체성, 문체, 글쓰기

투고일(2018. 5. 15), 심사시작일(2018. 5. 25), 심사완료일(2018. 6. 5)

〈Abstract〉

The Gap in Enlightenment and the Place of Modern Subjectivity

– The Meaning Behind the Writing Styles in the Magazine *Sonyōn* –

Park Seulki *

The unity of speech and writing is the ideal standard in the establishment of modern language and literature, and this is closely related to how linguistic features contribute to national and ethnic boundaries. Generally, the conflict between Chinese and Korean characters is resolved by adopting a mixed style of Chinese and Korean, followed by generalization into pure Korean. If the writing style in *Sonyōn* is regarded as the practice of mixing Chinese with Korean characters and the pioneering of a modern style, the hybrid style can be interpreted as the result of a transitional experiment. Since the unity of speech and writing involves the matching of motives with their written expressions, the inner world and language are exhibited at the same time. The “birth of modern subjectivity” is thus considered a premise of all styles of writing. However, in the writing style of *Sonyōn*, the first-person narrator is presented as highly insecure.

In *Sonyōn*, Ch'oe Namsōn uses the “deora[더라]” verb ending in most of his writings. He placed himself in the center because he wanted to share his extensive knowledge with others and create a platform of exchange. With *Sonyōn* acting as an instance behind the platform, it is difficult for Ch'oe himself to be separated from the magazine. The modern subject who possesses an inner world is unable to assume the first-person pronoun of “I” under the assigned system of knowledge. Sentences with “I” as the subject and ending with “da[다]” appear only in a few travel essays. Ch'oe's travel essays are not accounts of his personal experience. The pronoun “I” and the “da [다]” ending, intertwined with Chinese and pure Korean characters, scenic descriptions and a range of knowledge, can only be glimpsed in the gap between the hybrid writing styles.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Hallym University.

That is, the “da[다]” ending is employed at the point when further arrangement becomes impossible, and introduced in the occasion a lgap. “I,” which serves as the modern subject, appears in the remaining gaps. These small gaps are where the stage of enlightenment begins to crack, and epistemological dissemination occurred. “I” failed to have its own representation in the allocated language, resulting in the use of different names by Ch’oe Namsŏn. It was only under different names that “I” could have a place on the stage of enlightenment. From this perspective, “I” as a modern subject is seen as a “nameless place” existing in the gap between hybrid styles.

Key Words : the Magazine Sonyon, Ch’oe Namsŏn, Knowledge, Enlightenment, I, Modern Subjectivity, Writing Styles